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대한
TEL. 061)654-8885
등록번호: 제46130-2016-00011호

여수일보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길 18, 1층 대표전화: 061)654-8885 팩스: 070)8220-8808 www.ysbtv.kr 2019년 10월 29일 (음력 10월 2일) 화요일 / 제74호

권시장, '2019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휴양도시 발전 부문 혁신행정 대상

21일,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등 주관…지속가능 관광 정책 높게 평가
시민중심, 균형발전 시책 지속할 계획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1일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등이 주관하는 '2019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에서 휴양도시 발전 부문 혁신행정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계각층 리더의 공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평가위원들은 권오봉 여수시장의 지속가능 관광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권 시장은 쓰레기,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지속됐던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아래로 옮겨 시민 불편을 줄였다.

SNS '힐링여수야'와 '여수시야기', 관광 모바일 앱 '아! 여행!'과 음식물가 앱 '여수맛' 등 소통 정책에도 힘썼다.

관광 홍보 웹드라마와 웹툰을 통해 지역 알리기에 노력하고, 관광객 설문조사를 진행해 만족도를 높였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불편대책반을 신설했고, 관광진흥기금 환원과 지역민 관광시설 할인 등 시민 혜택도 늘렸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를 지속가능 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중심, 균형발전 시책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반대, 분노한 주민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여수시, MOU 즉시 파기하고 개발계획 철회하라는 만흥주민
권오봉 여수시장 시청사 앞에서 연이은 허수아비 화영식 진행

여수시청에서 화영식을 하려던 시민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큰 충돌이 며칠째 이어지며 반대는 더욱 게세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여수시 만흥지구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100여명이 23일 시작으로 여수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원과 충돌하여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만흥주민들은 LH와 국토부, 여수시장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준비하고 시청사 앞에서 연이은 허수아비 화영식을 진행했다.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개발을 진행하려는 여수시장의 아집과 LH공사의 작태에 분노한다"며 "업무협약을 파기하고 개발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6월 LH와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7만4천㎡ 부지에 3천578세대가 들어서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소식이 알려지자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임대 아파트보다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도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최향란 기자. 김영주기자

여수일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길 18, 1층
고문 박균상 / 회장 정빈근 / 발행·편집인 한영래
편집국장 최향란 / 대표 김영주 / 시민기자 대표 차기철
대표전화 : 061)654-8885
기사제보·독자투고 : 061)654-8885, 팩스 : 070)8220-8808
기사제보·배달안내 : 061)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654-8885
*등록번호 : 전남 다00343(주간) *등록일 : 2014년 7월 11일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196회 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

백인숙 여수시의원, '느린 학습자' 위한 독서공간 마련

23일 10분 발언서 "특수상황 놓인 아이들 위한 공간마련" 주장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최근 "학교와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를 위해 독서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백인숙 의원은 지난 23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했다. 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러한 '느린 학습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서공간을 마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경계성지능 아이들은 한 반에 3명, 전국적으로 약 80만 정도로 전체 학생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되나, 이들을 위한 독서공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느린 학습자와 가족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특수상황에 놓인 이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종섭의원, 수산물특화시장 문제해결 '적극적 행정'

21일 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시장관리권 회수 · 권고안 집행 강조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21일 장기화하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간 갈등과 관련해 '시장관리권 회수' 등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열린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갈등과 여수시의 대응'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조정 시민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상인회측 입장을 설명하며 "상인들은 2014년경부터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관리비를 모두 공탁해 회사측에서 회수를 완료하는 등 조정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도개발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이미경 의원 발의 건의안 21일 196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채택

여수시의회가 미래에셋이 1조3850억 원을 투자하는 경도개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21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도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고용창출도 1만5000여 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조 원 이상의 건설 분야 투자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 경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과 함께 "이러한 기회를 지켜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업체들이 건설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에 적극 협력할 것과 경도개발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상생.발전하는 사업이 되도록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미래에셋그룹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강현태 의원 "주민이 반대하는 협약 즉각 파기" 촉구

만흥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파기 촉구 결의안 채택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체결한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16일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7, 반대 6, 기권 3으로 채택됐다.

강현태 의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여수시가 LH와의 협약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점을 집중 지적했다. 또한 만흥지구가 당초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사업계획대로 고품격 관광단지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서 195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협약의 즉각적인 파기와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LH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시의회가 관련 예산까지 의결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LH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여수시는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무산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 여수시의회, 여수시장의 제척 요구 등 지역민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효 의원, 웅천지구 건축민원 '적극 중재' 당부

웅천부영8, 9차 분양변경 대규모 신축에 따른 문제점 지적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22일 10분 발언을 통해 최근 늘고 있는 웅천지구 건축민원 관련 주민 입장을 대변하고 여수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선효 의원은 이날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웅천 부영아파트 8·9차 분양변경, 꿈에그린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웅천 부영아파트 8,9차 분양변경 문제는 당초 임대 모집으로 홍보가 됐음에도 이후 갑자기 분양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영아파트는 홍보와 달리 지난 8월 28일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8,9차 임대 모집공고를 취하 접수했고, 10월 1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음으로는 꿈에그린 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과 관련해 발언했다.

꿈에그린 아파트 앞 오피스텔의 경우 지하 3층, 지상 7층, 총 5동 규모로 꿈에그린 아파트 9층 높이로 건축 예정인데 입주민들은 조망권 상실 등을 이유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지역 주민 44세대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무진동 발파, 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 달라"

박성미 의원, 196회 임시회 본회의서 10분 발언하며 건립 필요성 주장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화사는 최근 여수시에 5년 무상사용 조건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수정된 내용을 여수시가 제안하면 재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지역에는 신화, 전설, 민담 등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여수만의 특별한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없는 실정"이라며 "이순신 유적과 영화촬영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여수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가 필요한 시기에 영화세트장이 많은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명장' 감독에 의해 영화 성공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돌산지역이 국내외 명소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충무공과 여수의 풍부한 역사성을 살리고 수년째 방치된 진모지구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영화세트장 건립을 여수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 만들자"

민덕희 의원, 16일 196회 임시회서 '무장애 도시' 주제 10분 발언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16일 "도시 경쟁력을 높일 불쏘시개가 될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했다.

무장애 도시란 누구나, 언제나,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장벽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시민 모두를 위해 도시 디자인에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장벽 없는 생활환경의 핵심은 애초부터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물리적 환경은 당연히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장벽 없는 생활환경의 핵심가치"라며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

전라선 고속화 외면, 서울~여수만 유일하게 3시간대
선로도 없는 김천~거제 서부경남KTX는 김경수 취임 후 예타면제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돼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가 올해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거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 서울~여수 구간의 전라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이동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조사 때는 B/C가 0.72,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 종합평가가 0.5를 넘지 못하는 0.429를 기록해 퇴짜를 맞았던 사업이었지만, 김경수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총사업비만 4조7,000억 원인 대규모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어, '김경수 KTX'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경제성 없음' '재무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을 낳고 있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이 전라선인 여수권 지역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목표인 철도 2시간대 생활권에서 여수만 제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500만을 상회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철도승객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3.7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하지만 여수까지는 현재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여수 구간인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라선만 제외지역으로 남는다면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은 완성되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김영주기자

이용주의원, 「만흥지구 택지개발」 반대

만흥지구 택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와 면담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 무소속)이 18일 최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의원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만흥지구 택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 10여명과 중앙동 의원 사무실에서 면담(16일)을 갖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비상대책위는 첫째,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아래 4세대는 촉진지구에서 제척할 것, 둘째, 평촌마을 주민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를 것, 이 두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청 앞 집회와 매립장 전면봉쇄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 여수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책 사업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LH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최근 LH로부터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여수시와 비상대책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며,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수시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평촌마을 주민들의 개발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모아지면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의원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며 "여수시는 비상대책위와 약속한 대로 평촌마을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앞으로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논란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여수상포지구 감사원 발표 후 뜨거운 공방

이상우의원,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이 되기는 하는 건가
전창곤의원, 상포지구 보고서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상우 의원

전창곤 의원

여수상포지구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여수지역 정치권 진실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6일 여수시의회 제 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전창곤의원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이 23장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위법, 특혜 운운하면서 주철현 전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라고 말하며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감사원은 당시 시정책임자로서의 주철현 전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상포지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 여수시에 있는 권한을 도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상우의원은 10분 발언에서 "과연 상포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이 되기는 하는 건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인 피해자들 할까? 삼부토건이 할까? 아니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할까?" 라고 반문했다.

여수시 집행부 자료를 배포하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도시기반 시설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고 지방세 4억 여원의 체납도 징수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건설 웅천 꿈에그린 현장 흙을 상포지구에 붓겠다고 여수시에 신고 했지만 그 흙은 상포지구에 없다" 는 발언과 함께 한화건설이어떻게 상포지구를 사토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여수시 집행부에 업무현안 보고를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용주의원(여수 갑 국회의원)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철현 전 시장의 사죄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송영선기자

김유화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김유화 부위원장

김유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전남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위원회다.

현재 복지TV전남방송 사장인 김 위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전라남도의회 소식

헌법재판소에 전남도-경남도 간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이광일 도의원,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야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상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전남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규정되고 있으며, 경남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

또한 경남측이 주장하는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다.

이광일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확정하여 전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강정희 도의원 "당사국총회 유치 위해 컨벤션센터 예산확보 서둘러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늦어지면 당사국총회 유치 물 건너가 대책 마련 촉구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17일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22유엔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강정희 의원은 "정부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지방이양사업이란 점을 이유로 지방비로 건립하라는 입장이다"며 "2차 추경에도 컨벤션센터 관련 예산이 없고,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는데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지난 5월에 끝났는데,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예산확보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여수시는 컨벤션센터에 민간 투자를 주장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도와 협의 중에 있고, 다른 공사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립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그렇지만 부산의 경우도 국비지원 사례가 있고, 당정협의회 때에도 컨벤션센터 건립과 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 실행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무경 의원, 자연친화적 학교숲 조성 관리 기반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교에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돕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다.

최무경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매체에 길든 학생들을 학교숲으로 이끌어내 자연 속에서 교감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은진기자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관련 기관 협의 의결안 통과

여수시의회 "대승적 차원에서 기상과학관 부지매입 의결"

주승용 부의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 반드시 추진되어야
이용주 의원, 사명감 가지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비 예산 통과 최선 다하겠다

지난 2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실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임영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 등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를 논의한 후 3일만에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23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부지 매입 안건 의결과 관련해 "시의회가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는 과학관 유치를 위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건립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의회는 과학관이 기상청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국가 직접사업이므로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립의 각을 세웠던 끝에 23일 과학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이날 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길고 길었던 대립의 시간이 끝났다. 여수시의회는 '무상 제공 불가'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주 부의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2016년에 이어 임기중 두 번째로 맡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 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부지매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점 등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 쪽지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지매입 안건이 의결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항란기자

제18회 여수세계한상대회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성료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 청년 56명 참여, 40여 명 합격 '
22~24일, 여수세계박람회장…세계 52개국 경제인 4500여 명 참여
비즈니스 미팅 1만 2천여 건, 1억 9천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사흘간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52개국 경제인 4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한상 비전 콘서트, 청년채용 인턴십,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다.

대회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대회를 풍성한 비즈니스 교류와 다양한 볼거리, 많은 관람객 참여가 있었던 내실 있는 대회로 평가했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3만 3천여 명에 달하고, 비즈니스 미팅 12,347건을 통해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에 청년 56명이 참가해 40여 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대회 기간 여수시는 국내외 한상인에게 여수의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선상에서 진행된 한상 CEO 네트워킹을 통해 여수의 아름다움을 뽐냈고, 지역 경제인들에게 교류 기회도 제공했다. 한상인 여수국가산단 투어와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여수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여건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행사장 주변에서 펼쳐진 낭만버스킹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고, 자원봉사자 220여 명은 친절한 손님맞이로 대회 만족도를 높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회 성공개최에 힘써준 시민과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에 구축한 한상과 지역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2020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규완기자

화성,오산지역 건축사회 150명 여수박람회장 내, 워크샵 친절도 "빨간불"

4시간 동안 세미나 생수조차도 허용 불가?
불친절한 박람회장 내 웨딩홀, 여수 이미지 실축

▲언쟁끝에 겨우 준비해 준 전기물통만 150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성,오산지역 건축사회 150명이 여수박람회장 내에 위치한 웨딩홀 연회장에서 워크샵을 하는 과정에서 연회장 측의 불친절을 지적하는 일이 생겼다.

여수시는 관광의 새로운 도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고 포럼 및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시는 아름다운 여수를 알리기 위하여 여수사진공모전과 관광 홍보 웹드라마 '동백'을 제작했고 여수시와 (사)여수관광협의회는 '여수관광 친절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여수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행사를 추진하는 등 여수에 온 관광객이 다시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힘쓰자는 다짐과 교육을 받기도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여수는 관광객에게 절대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말고, 정직과 친절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노력에 반대로 가는 켄벤션웨딩홀이 있어 단체 관광객의 원성이 높다.

지난 25일부터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샵과 관광으로 여수를 찾은 화성,오산지역 건축사회 150명은 여수박람회장 내에 위치한 웨딩홀 연회장을 예약했다.

세미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약 4시간 동안이다. 연회장 대여료는 80만원, 물과 기타 음료 다과 제공은 없다고 했다.

5시간을 여수로 달려온 150명의 건축사들의 피로와 허기를 생각하여 모임주최측에서 커피를 타먹기 위한 전기물통 준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웨딩홀 관계자는 커피는 물론 생수조차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행사 주최 측은 4시간 동안의 세미나인데 생수조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웨딩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소 언쟁이 오고가고 결국 웨딩홀에서 전기물통을 준비해주었지만 서로가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일 취소할 수도 없고 150명의 건축사들이 세미나장에 도착하니 안내하는 직원 한 명도 없다. 낯선 여수 넓고 넓은 박람회장에서 화장실 이정표를 찾기도 처음이라 어렵다. 세미나장 들어가는 입구도 버스에서 내려 우왕좌왕이다.

행사 관계자는 "연회장 안으로 음료와 생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생수 등을 준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생수 반입금지'라는 원칙만 내세우는 웨딩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안내하는 직원도 없이 이렇게 불친절하다면 또 다시 세미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항란기자

'제4회 숲속힐링음악회' 무장애나눔길에서 음악회

'무장애나눔길 5백여명 관객 힐링의 시간

제4회 숲속힐링음악회가 미평동 봉화산 삼림욕장 '무장애나눔길'에서 5백여명의 관객과 함께 성대하게 개최(8일)됐다.

이번 제4회 숲속힐링음악회에는 오프닝 공연으로 고고장구 '꿀벌들의 장구'팀(김옥경 외 3명)이 신명나는 장을 펼쳤다.

시낭송 주명숙시인, 여수시립합창단 단원 8명(강길준, 송영숙, 서계명, 유슬기, 오현웅, 장현주, 김석철)과 여수국악단 해금 조아랑, 대금 노석기연주자가 참여했고 주관인 충화밴드 백충화단장, 김영주, 서혁신, 최향란, 음향 강기우 단원 등이 참여하여 가을이 깊어가는 숲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펼치는 음악회였다.

오늘 음악회가 펼쳐진 행사장은 여수시가 미평동 봉화산 삼림욕장에 '무장애나눔길' 1.6km를 조성한 곳이다.

'무장애나눔길'이란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숲을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시는 2017년과 2019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선정돼 복권기금 녹색자금 6억 7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사업은 이미 조성된 숲길 0.8km에 또 다시 0.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최항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우리동네 소식

여수시 소라면 윷놀이 선수단, 사랑의 쌀 나눔

지난 23일 여수시 소라면 윷놀이 선수단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소라면사무소에 백미 7포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품은 지난 15일 열린 시민체육대회 입상 상품으로 마련됐다.

윷놀이 선수대표 김규협 씨는 "작지만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돌산읍에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마련

여수시가 지난 23일 돌산읍 서외경로당에서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현판식과 어르신 합동생신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여수시 노인장애인과장, 지역 시의원, 노인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 축사, 위문품 전달, 합동생신잔치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어르신들이 정답고 의좋게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의 명칭을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로 변경했다.

여수시 문수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청결활동 '구슬땀'

여수시 문수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장기)와 부녀회(회장 문애리) 회원 20여 명이 한려초등학교 인근에서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벌였다.

이날 회원들은 학교 주변을 돌며 대형 마대 3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문수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취약계층 지원, 승강장 청소 등 아름답고 행복한 문수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21세기 로타리클럽 '사랑의 물품' 전달

여수21세기 로타리클럽(김동휘 회장)은 지난 24일(목) 쌍봉동 주민센터에서 쌍봉동 주민의 날을 맞아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물품봉사 전달식을 가졌다. 여수21세기 로타리클럽 강우원 총무는 "매년 2회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주삼동 홀로 어르신을 위하여 사랑의 쌀 (300만원)전달 봉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5년째 물품 봉사를 해오고 있는 본 클럽 김동휘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참석하여 어르신들께 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고 했다.

천나현기자

766억 투입해 수도관 정비…맑은 물 공급
시 단위 최초로 환경부 상수도 현대화 사업 선정

여수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에 766억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환경부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383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766억 원을 들여 둔덕, 학용, 거문도 등 5개 정수장 급수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사업 내용은 노후관 교체 56km, 누수탐사 정비 193km다. 유량계를 설치해 누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블록시스템도 63개소에 설치한다.

시는 인천 수돗물 사고 이후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여수시 상수도 유수율은 67.7%였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수율 85%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 건강 증진과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2023년 마무리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완기자

나의 인생 단상

추석명절이 지나고 오늘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

지역의 한계를 넘고자, 그리고 지역에 부끄럽지않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

열심히 앞만보고 노력한 그 결과는 주변에서 알아봐줄 것이란 위로를 해본다.

함께 수고해준 직원들과 언제나 아빠는 바빠서 전화 한 통하기 어려워하는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역에서 인맥없고 힘없는 나같은 사람도 실력과 노력으로 입증되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나를 채찍질하며, 직원들의 교육에 집중하고 실력을 높이려 노력해왔다. 잘 따라와준 직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싶다.

표현함에 서툴고 부족함이 많은사람이지만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앞으로도 많은 일정들이 잡혀있다.

하루도 쉬는날 없이 빼곡한 일정들 속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분야도 잘 준비 되어가고 있어서 기분은 좋다.

우리회사는 이벤트업을 기반으로 각종 장비를 직접보유, 직접수입하는 회사다.

기본적인 음향,무대,조명 등등 장비부터 동시통역기, 무선회의시스템, 전시부스, 각종회의 영상장비등을 보유하고 있다.

직접 보유하지않으면 갖고있다고 하고 빌려쓰기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이 가을, 각종 행사가 많은 철이라서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강기우 시민기자

엑스포 동아리 페스티벌~~~

19일 여수엑스포에서 여수에 있는 초, 중, 고 학교들이 모여 동아리를 알리는 페스티벌이 열렸다.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모였는데 열쇠고리만들기와 가죽팔찌만들기, 나만의 화분만들기, 방향제만들기, 연주하는 동아리 등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모두 모였다.

흥겨운 공연도 있었다. 댄스, 난타, 마술 모두 즐거웠다.

이 동아리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융합, 과학, 수학 등의 부스도 열렸다.

나는 열쇠고리만들기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

나무판에 색칠을 하고 열쇠고리를 달기만 하면 끝~~~ 예쁜 나만의 열쇠고리가 탄생한다.

영재교육 부스에 가서 3D펜으로 만들기 체험도 해봤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페스티벌이었다.

황예서 어린이기자 (관기초5년)

'2023년 세계만 클럽' 개최 확정, 전 세계인 여수로~~

여수에는 아름다운 여수만과 가막만이 있다. 이런 아름다운 만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생겼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Club of the Most Beautiful bays in the World)의 제 19차 연차총회의 개최지로 여수가 확정된 것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또 2023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조성을 위해 세계만 클럽 총회 유치를 추진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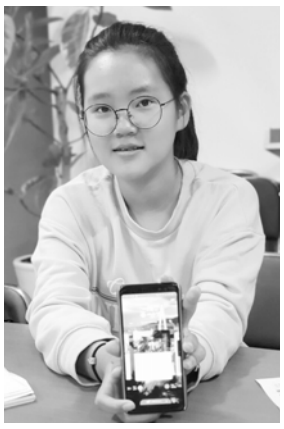
그 결과 제 19회 총회 개최지로 확정 되었는데 이 일은 여수시민 모두 다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곧 전 세계에 알려질 여수시의 5개의 만 중 하나인 여자만은 여러 즐거운 체험들과 아름다운 바다노을을 즐길 수 있는 '여수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가 해마다 열린다. 이 행사는 망둥어나 바지락등을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갯벌 체험과 포토존, 바다음식 체험관 등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함께 한다. 여자만의 노을은 사진 작가들이 최고 사진찍기 코스로 유명하기도 하다.

여수의 보석 같은 섬과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 천혜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강성은 학생기자(웅천중 1년)

여수 맛집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수맛' 앱 출시



여수는 밤바다로 유명한 관광도시이지만 식도락 여행으로도 매우 유명한 곳이다.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음식 값이 맛에 비해 너무 비싸거나 맛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여행을 망치기 일쑤이다.

여수시가 관광객을 위한 음식 물가 모바일 앱 '여수 맛'을 출시하였다는 점은 관광객들에게는 반가운 정보가 될 것 이다.

여수 맛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음식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모바일 앱에 가입을 해 보니 '여수 맛' 에서는 여수 10미, 여수 음식점, 여수 맛집 지도와 함께 여수 관광안내, 여수야(여수 숙박업소 앱), 여수랑 공영자전거 대여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또한 여수 맛의 my페이지에서는 내가 찜한 음식점, 내가 찜한 메뉴, 내가 다녀간 음식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나의 시식 평을 등록 할 수 있다.

여행객들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음식점의 위치와 길 찾기 또한 할 수 있다.

나는 여수 맛에서 소개된 음식 중에 여수 10미중 하나인 게장백반을 앱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명품게장'이라는 집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여수의 음식점 821개가 등록되었고, 홍보효과가 뛰어나 참여업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수의 물가정보와 함께 여수 맛에서 소개된 음식점 휴폐업, 음식 가격, 메뉴 등을 점검하고 업데이트가 될것이라고 하니까

전국 관광객 여러분~~~ 여수로 맛기행 오세요~~

이규리 학생기자(웅천중1년)

가을, 여수에 감성을 색칠하다

' 예술과 인문학을 만나는 티타임 ∴여수문화감성 동살 주최

바다와 하늘이 쪽빛으로 물들어 가면 여수에 가을이 온다.

가을이면 허한 마음에 괜시리 커피 한잔 챙겨서 호젓한 갯가길에 차를 세워놓고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충전하기 좋은 계절이다.그래서 가을은 우리들 삶을 찰지게 하는가 보다.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2시) 와 목요일(오후7시)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예술과 인문학을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2019년 여수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여수문화감성 동살이 주최하는 〈예술과 인문학을 만나는 티타임〉이다.

이번 강의를 위해 진현종 작가는 지역에서 실력있고 참신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물들어 가는 가을여수의 시간표를 만들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음속 깊이 묵혀둔 감성을 끄집어 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그래서 강의 장소도 낭만여수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종화동 커페베네 2층에서 티타임을 하며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1강은 '저항에서 심로로' 장창익 화백이,제2강은 '일제 강점기,여수시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최재성 박사가,제3강은 '모두가 사진가인 시대의 사진촬영법' 임영기 사진가가,제4강은 '여순사건,그 명명의 정치학' 진현종 작가가,제5강은 '어반 스케치,여수 밤바다를 그리다' 신형배 목포현대미술관 관장이,제6강은 '소통을 잘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김리홍 하브루타 교육원 원장이,제7강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 이은주 바이올리니스트가 맡아 주셨다.특히 제7강은 여수시 문화원 강당에서 열린다.

10월 8일 그 첫 강의는 장창익 화백님이 열어 주셨다.

장창익 화백님은 자신의 작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술가의 길을 걸어온 드라마틱한 여정을 속직 담백하게 풀어놓았다.작가는 예술가로서의 인생 전환을 이룬 사건이 휴전선 인근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6·25전쟁 때 발목지뢰를 밟아 큰 부상을 당해 후송된 병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예술가적 삶을 숙명으로 받아드렸다고 한다.남농 허건선생 문하에서 사군자를 익히고 나서,또래보다 늦은 대학생활을 하며 이왈종화백을 만나며 화가로서의 길을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이었고,사회비판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화백이 '좌파 예술가'임을 작품을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다.

작가의 작품에는 '장승,무녀,대나무,잠자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천착되어 왔다.무겁고 어두우면서도 원색으로 화폭을 채우다 보니 '한이 서린' 작품이 즐비하다.화백은 그런 정서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여 자연스럽게 작품에도 녹아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장 화백의 작품은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예술에는 1등,2등,3등 등수를 매길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다.

오롯이 그림그리는 일 밖에 모르고 우직하게 살아오셨던 인생 밑반찬이었던 셈이다.화백은 박생광 선생님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였다.그래서 박생광 선생님이 우리민족의 혼을 오방색으로 표현하는 일에 매진하였기에 장창익 화백의 작품에는 민족의 혼에 '한'을 불어넣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내 이웃들이고,민초들이었다.

우리 민초들의 삶,민중들의 자유 해방을 노래하고, 남북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화백의 작품에는 유난히 '철조망'을 그려넣은 작품들이 많았다.철조망은 작가의 굴레이고,우리 민족의 아픔이고,억압된 인간의 해방을 위해 끊어놓아야 할 벽이었다.

화백의 작품은 눈으로만 보지 않고,마음으로 보게 하는 감동이 있었다.장식품으로 대량생산하는 그림,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한 그림, 유행을 타는 그런 그림이 아닌 시대가 흘러도 역사를 들려주는 그런 작품을 지향하는 화백의 작품들이다.

작품들에 담긴 사연과 의미 등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2시간이나 흘렀다.

제1강을 해주신 장창익 화백의 열강이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허한 가을에 마음이 충전되는 기분이다.

최충영시민기자

이순신 숨결 따라 걷는'낮달 산책투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5시…해설사와 함께 유적지 탐방

이순신광장,선소 2개 코스 운영…코스 별 20명 선착순 모집

여수시가 이순신 스토리텔링 관광상품인 '낮달 산책투어'를 오는 12월 7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낮달 산책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순신 유적지를 산책하며 국악 버스킹과 스탬프 투어, 서책 만들기 등을 즐기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개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는 이순신광장 안내소 집결~전라좌수영성~진남관~매영정~고소대~달빛갤러리~오포대~천사벽화골목이다.

2코스는 선소 안내소 앞 집결~장도입구~이순신공원~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이다.

참여 희망자는 여수시 관광문화 홈페이지(www.yeosu.go.kr/tour)에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연인과 함께 이순신 장군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현 어린이기자(관기초 5년)

청찬합시다 여수바다는 아름다워요~

나에게 여수는 '바다'다.

여수 바다는 아늑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여수종화동 바다는 하멜등대와 멋진 버스킹이 있고, 돌산대교의 야경이 있는 환상적인 밤바다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여수바다 관광지다. 여수에는 다리 위를 산책하는 곳도 있다. 바로 소호동동다리다.

소호동동다리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포토존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가족 나들이에도 좋다.

동동다리에서 기타연주를 봤는데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연주를 즐겼다. 연주를 들으면서 바다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좋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수바다를 좋아하고 자주오고 여수를 보존하면 좋겠다.

여수바다 진짜 최고다!!!

김성현 어린이기자 (관기초 5년)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도전

' 갑분글 트리오 삼례문화예술촌 답사기

학생들의 꿈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우리 갑분글(갑자기 분위기 글쓰기) 트리오 팀은 삼례문화예술촌을 다녀왔다.

갑분글 트리오 팀은 소설을 쓰는 팀이며 여수웅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규리, 강성은, 조여원 이렇게 세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선 많은 문화와 예술에 관련한 경험이 필요하나 우린 아직 어린 학생이라서 경험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자료, 정보 수집 및 답사를 위하여 최근 우리 팀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장소를 방문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찾아간 삼례문화예술촌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에 위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많은 체험활동 중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누가 뭐라 해도 ' 시어터애니 ' 극장의 공연을 뽑을 것이다.

시어터애니 극장 속엔 한국무용, 판소리, 민요, 장구 등 다양한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연들이 줄지어 있다.

시어터애니에서는 다양한 민요를 들어볼 수 있고 여러 전통이 어울려져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다.

무용과 장구가 어울러진 전통춤, 두 사람의 공연인 판소리, 감탄이 절로 나오는 민요등 다양한 활동이 어울러진 전통공연을 직접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그중, 특히 민요는 다 함께 따라 부르며 가수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를 수 있기에 더욱 뜻깊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는 관객이 소리꾼의 메기는 말을 받아 노래를 이어 부를 수 있기에 그것 또한 관중과 소리꾼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다 함께 흥에 겨워하며 즐기는 노래는 모두의 목소리가 모인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담겨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주었다.

우리들의 소설의 완성이 눈앞에 있다!

조여원 학생기자 (웅천중 1년)

' 2019 여수 동동 북축제 ∴전 세계 북소리에 흠뻑 빠지다

'2019 여수 동동 북축제'가(5일-6일) '용기공원(학동. 장성삼거리 쪽)의 주무대와, 선소공원 일원의 보조무대에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여수는 북의 도시다. 고려말 왜구를 물리친 전라만호 '유탁 장군'과 함께한 고락산(鼓樂山)이 있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종고산(鐘鼓山)이 있다. 특히 유탁 장군이 여수 소호동 일대 '장생포(지금은 장성 마을. 주무대가 있는 곳)에서 왜구를 물리치자(1352년경), 부하들이 기뻐서 불렀다는 '장생포곡'이 고려가요로 현재 전하고 있는 월령체 노래인 '동동(動動)'이라는 학설이 있다.

주무대 공연으로는 거리 북퍼레이드, 개막식(19:00-19:30), 여수시립국악단의 북춤, 유명 예술가 초청 공연(유명 전통·현대 북아티스트 공연, 창작 타악 퍼포먼스팀 '아퀴 a-KWI', 국내 최고 타악 아티스트 '김미소',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팀 '아냐포 Anya fo', 브라질 타악 퍼포먼스팀 '라퍼커션') 등 전세계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의 환상적인 공연이 있었다.

또한 드럼 퍼포먼스 '이민진', 창작 타악 퍼포먼스팀 '아퀴 a-KWI : 타다스페셜', 진도 북놀이 등 전세계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의 환상적인 공연이 있었다.

여수시니어 공문택 시민기자

세륜시설 작동 않고 '먼지 날리는 배짱 공사'

인근 주민, 시가 사실상 방관해온 것은 아니냐 의혹과 눈총

현장고발

9일 오후 2시경 소라면 복산리 1290-1 근 매립현장이다.

하루에도 수십대의 대형 트럭이 여천동소재 장미아파트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런데 매립 작업하는 과정에서 세륜시설을 작동 시키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작업 현장이 포착되었다.

매립 현장에는무슨 이유인지 세륜시설을 작동 시키지 않고 있었고 대형덤프트럭이 수십번 드나들면서 흙이 유입돼 도로를 오염시키고 먼지가 일고 있었다.

덤프트럭 기사가 세륜시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장감독자로 보이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세륜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덤프트럭들은 세륜장 옆으로 이동하여 빠져나가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다.

9일은 휴일이고 해당 현장은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싶어 여수시 도시미화과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관계자의 답변은 "현장 점검을 했지만 장미아파트에서 유출된 토사에는 문제가 없다."였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감시설과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한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봐서는 시가 사실상 방관해온 것은 아니냐는 의혹과 눈총을 사고 있다.

최향란기자. 촬영 김영주기자

남해화학과 (주)새한은 전원 고용승계 되었다는데 두 번 죽이는 언론 플레이?

해고 노동자 "공부 안한 죄! 빽 없는 죄!로 30년 넘게 최저시급 8,350원인데, 결국 해고되었다"

고용 승계에서 배제된 민주노총 소속 26명, 29일 회사측과 6차 협의

인터뷰

여수남해화학 하청 근로자 집단해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원회(이하 남해화학 비정규직 전남대책위)와 사측이 내일 오전 11시에 6차 협상을 하기로 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를 한 날은 2년마다 해고 예고장을 받아 오면서 불안한 직장생활을 해오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결국 집단해고를 당하고 사내에서 18일째 농성을 하고 있었고 현재(28일)는 29일째 농성중이다.

해고자 A씨는 "공부 안한 죄로 빽없는 죄로 1년 된 신입사원이나 31년 장기근속자나 연차에 상관없이 시급 8350원이다. 남해화학에서 가장 험한 밑바닥 일을 하고 있고 매달 80시간 잔업의 살인적인 초과근무을 해야 네 식구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 2년마자 재계약이라서 퇴직금도 정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참고 살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이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통보라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해화학측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고자들은 사측이 특정 노조 근로자들만을 해고 시킨 점에 대하여 특정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해화학 하청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새한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 가운데 한국노총과 항운노조 소속 47명에 대해서만 고용 승계하고 민주노총 소속 26명의 노동자는 고용 승계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전남대책위에 따르면 (주)새한측에서 각서를 비롯해 합의 제안서, 보충협약서 등을 쓰게끔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각서 내용은 작업지시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것, 새한 근무자에게 모독이나 위협이 되는 언어및 행동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발생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문제발생시 회사의 처벌을 받겠다 등 노예계약서를 쓰게끔 하고 언론에는 고용승계가 이뤄진 것 처럼 거짓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남해화학은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한 용역비를 기준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존 포장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수산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적격업체 심사와 연계해 최저가 입찰제도 등 구매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오전 11시 6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최향란기자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대포지역 일방적인 방문통보 잘못된 처사

지역민과 대화 의지 있는 건지, 방문 형식만 취하려는 속셈인지 의혹 제기

대포지역발전협의회와 사단법인 ECO-PLUS21은 박봉순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환경산림국장 겸직)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포지역 방문통보 시간을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 대포지역민과 사) ECO-PLUS21과의 만남과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여수 출장 중에 스쳐가는 깜짝 방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대강 넘어가려는 얼렁뚱땅 행정이 아니냐고 강한 비판을 했다.

지난 7일 대포지역발전협의회(이하 대포협의회)와 사) ECO-PLUS21은 여수 대포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지키기를 위한 건의문을 들고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찾은바 있다.

이날 건의문 내용은 첫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담당 국장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조작에 대한 책임은 '측정대행업체 관리감독 부실'의 전라남도에게 있고 전남도는 최근 2년간 측정대행업체들을 점검하고도 위반사실을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한 전남도의 관리 감독, 점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1,2종 환경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가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는 이유다.

둘째, 여수대포지역과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설치를 요구했다.

여수대포지역은 여수국가산단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산도 없이 8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온갖 유해물질이 직격탄으로 날아와 지난 50여년의 세월 동안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설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역환경실태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조사 순위는 열악하고 무방비 상태의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때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향후 일정을 잡아 대포지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의논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깜짝 방문한 점에 대하여 대포협의회와 사)ECO-PLUS21관계자는 "전라남도가 과연 지역민과 대화의 의지가 있는 건지, 그냥 왔다갔다는 형식만 취하려는 속셈인지 의혹이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곧 대포지역을 다시 정식으로 방문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폐기물 무단투기에 불까지 질러대는 나쁜*를 잡아라!

시민의 목소리 (호루라기)

몰래버린 양심 끝장단속하라!

대포 지역에 상습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를 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불까지 질러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파렴치한 현장이 있다.

지난 13일 밤 11시28분경, 집에서 잠을 청하는데 화학공장 사고 나면 나는 냄새, 고무같은 것을 태우는 고약한 냄새가 심해 밖으로 나가보니 공항 쪽 근처에서 시뻘건 불이 검은 연기와 함께 타오르는 경악스러운 현장을 목격했다.

곧 119가 와서 불을 진압했는데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았다.소방대원의 말에 의하면 종종 폐기물 무단투기를 하고 불을내는 상습적인 장소라고 했다. 대포주민들은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불까지 지른 양심 없는 나쁜*를 잡아달라고 고발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곳 대포지역에 폐기물 불법투기 못된 행동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도록 '끝장단속과 수사'를 촉구 해야겠다.

대포지역 주민 일동

*호루라기- 시민 여러분의제보를 받습니다. 신원 비밀을 보장합니다.
전화)061-654-8885 이메일ysib1333@hanmail.net

법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대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여수국가산단 환경 모니터링 교실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6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팀장(4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김모 팀장(50)과 김모 담당(31)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정모 담당(31)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록과 법령에 의거할 경우 환경업무의 관리감독과 단속권한까지 가진 환경부나 전라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관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시법 위반의 경우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같은 업체의 직원, 측정대행 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화학 임원 이모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 기소된 전 임원 이모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이모 팀장(50)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이후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여수시민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양갈래 고민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 '10만 관람객들의 환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 망각, 하늘 바다 오염 CO2 배출 행사?

'2019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26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 일원에서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Fall in love with Yeosu!)'라는 주제로 화려한 불꽃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연기됐던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40여분간 다양한 형태의 불꽃을 쏘아올리며 10만명의 관람객들을 열광시켰다.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형상화한 1부공연에 이어 2부에서는 사랑에 빠진 연인의 감정을 불꽃으로 묘사하며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40여분간의 불꽃놀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불꽃경연대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를 망각하고, 하늘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CO2 배출 행사이자,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반 환경적 행사"라는 것이다.

특히, 여수시가 향후 주요 시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불꽃축제'는 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역시 유치 건의문 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는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과 일맥상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여수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여수시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바다와 연안'이라는 해양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불꽃축제는 제고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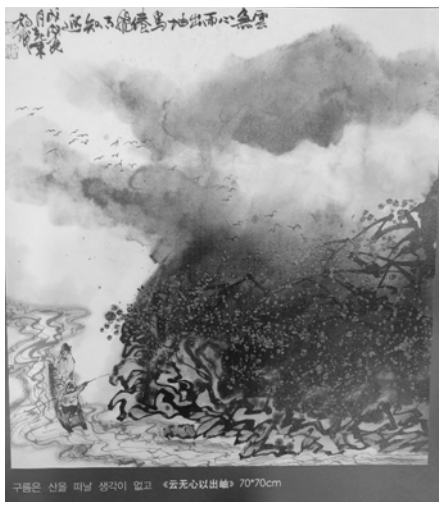
김영주 기자

노주 주칭준 한.중교류전시회, 수목의 전통 지키는 작품전

노주 주칭준 한.중교류전시회가 예술의 섬 장도전시관에서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시 된다.

이번 전시회는 수목의 전통을 지키는 작품들로 산, 물, 자연을 통해 작가 고유의 기법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주 작가의 작품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친밀하고도 여유롭고 기품있는 중국 전통미학이 담겨져 있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중간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은 아무리 높아도 끝이 있기에 용감한 자는 정상에 올라서서 뭇산을 작게 보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예술의 길은 영원히 정상이 없기에 예술가는 한 평생을 올라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중의 묘미를 만끽한다

- 노주, 주칭준 -

차수나 시민기자

여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중권유치'시민사회추진위 출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10개 시군이 유치 한마음 다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중권유치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장,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했다.

장석만 동서포럼 사천위원장은 추진배경에서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동서창조포럼 초청 간담회(2017.2.15.)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유치를 약속했다"면서, 여수 유치 시 남해안 남중권인 전남동부와 경남서부가 하나 되어 진행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중구 동서포럼 상임대표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여수유치를 반드시 이뤄내어 내자고 했다. 류상입대표는 "지역사회의 통합만이 남해안남중권이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위대한 발판"이라면서. "하늘에 그 뜻을 둔다"고 했다.

이어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대내적이라면, 지금부터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치밀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을 통해 환경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국가차원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서완석시의회 의장은 "COP는 179개국이 가입되었고, 행사시 2만여명이 모인다"면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되어 또 다시 2012세계박람회장이 활용되면 남해안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상훈 실무위원장은 "오는 11월 남중권 범 유치추진위원회가 창립식을 갖고 중앙정부에 COP28 유치 정책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했던 여수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며, 전 시민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2022년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 COP28 유치 국가계획 수립과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남해안 남중권 10개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망라된 '남중권 범 유치추진위원회'를 10월 중 발족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연은 동서포럼 조세윤 남해위원장이 'COP는 무엇인가?', '왜 유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펼쳤다.

조 위원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채택하고 유엔이 승인한 '여수선언'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의 COP28 여수유치 약속을 언급하면서 COP남중권 유치는 동서화합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정부의 가야사 재조명은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문재인대통령의 큰 뜻이라고 역설했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동서창조포럼, 여수시 기관?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서창조포럼은 여수, 순천, 광양, 진주, 남해, 사천 등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추진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해광기자

여수 안산근린 공원,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수상

여수시는 지난 11일 안산근린 공원이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친환경디자인상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간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요소, 활용도, 아름다움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심사위원들은 여수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분류돼 있던 안산근린 공원을 도심 내 명품공원으로 조성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안산근린공원은 1977년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광장,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교목과 관목 1만여 주를 심었다.

시 관계자는 "안산근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수목과 시설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여수 설화이야기' 결과보고 전시회 열어

여수미술관(관장 서봉희)은 오는 10월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수 설화이야기'(부제: 여수 설화이야기에 그림을 입히는 설화그림책 프로젝트) 결과보고회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보고 전시회는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으로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여수 설화이야기' 프로그램의 종료와 더불어 개최하는 전시이다.

여수미술관 '여수 설화이야기' 결과보고展은 지난 6개월 동안 15명의 여수시민과 지역 문화 해설사,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함께 설화가 있는 섬 3곳(금오도, 개도, 향일암)을 답사한 뒤, 여수 섬 이야기를 담은 작품 50여점과 금오도, 개도, 향일암 등의 설화가 있는 지도 3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사는 자연이다] <10>

토양에도 생물이 살고 있을까?

하 병 연
이학박사/시인
국립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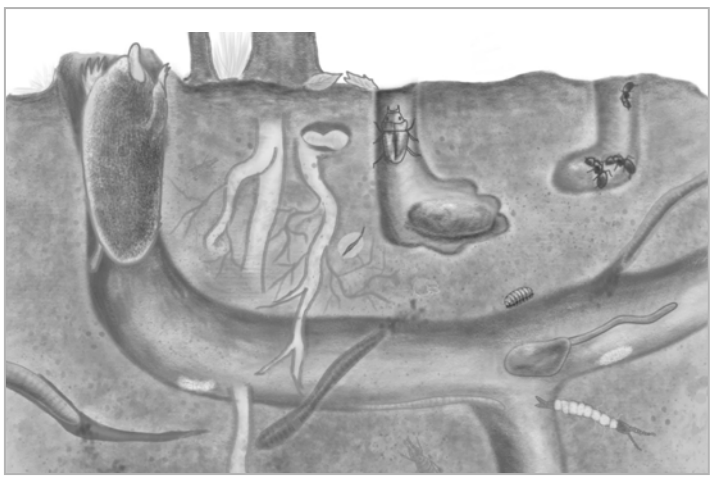
토양에는 지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보다 훨씬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흙에 뜨거운 물을 함부러 쏟아 버리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 속에 수억 마리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토양 속에 생명체가 없으면 지상부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토양 내 생물은 엄청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상부 생명체가 생명을 다하여 토양 속으로 들어가면 토양 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토양의 한 구성 성분으로 환원되어 다시 지상부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쉽게 멸종될 것이다. 지상부 동식물 사체들이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지상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넘쳐나는 쓰레기 더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지하부 생명체는 두더지, 지렁이, 노래기 등과 같은 대형동물 군과 톡토기, 진드기 등과 같은 중형동물군, 선충과 단세포 생물인 원생동물 등과 같은 미소 동물 군이 있다. 또한 미생물 군으로 바이러스, 사상균, 세균, 방선균, 조류 등과 같은 미생물이 있다. 건강한 토양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수백만 가지의 생물종과 수십억 마리의 유기체가 모여 살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생명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토양 미생물은 전체 토양 질량의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은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특히 작물 뿌리 주변의 근권은 작물 뿌리가 성장하는 동안 다양한 물질을 흡수하고 배출하여 토양 내에 독특한 환경을 형성하고 토양 미생물의 활성과 번식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근권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을 근권미생물(rhizosphere microorganism)이라 하며 이들 미생물 중 작물 성장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미생물을 식물성장 촉진 근권 미생물(Plant Growth Promoting Rhizobacteria, PGPR)이라 한다.

근권 미생물(PGPR)은 작물 뿌리에 흡착하거나, 군락을 형성하여 뿌리에서 제공하는 여러 물질들을 이용하면서 성장한다. 근권미생물(PGPR)은 항생물질을 생산하여 병원균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거나,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하여 작물에게 질소원을 공급하고, 작물 성장을 조절하는 다양한 효소를 생산하여 여러 대사를 통해 토양내의 인(P), 철(Fe)과 같은 미네랄을 가용화시켜 작물이 흡수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작물의 생육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호르몬인 indole-3-acetic acid(IAA), indole-3-butyric acid(IBA), gibberellin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식물세포 활성화를 통해 작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토양 속에는 지상의 생태계와 같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토양 생물들이 토양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고, 만약 토양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파괴되면 그 영향은 지상 생태계에 전달되어 지상의 생태계도 파괴된다. 따라서 우리가 토양의 중요성은 이런 연유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지상부 농작물의 품질, 안정성, 수확량은 모두 지하부 토양 생태계의 건전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의 기본은 토양 관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토양 1g에는 미생물 1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 토양 안에도 지상처럼 엄연한 생명 세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세상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함부로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알림방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하세요"

여수시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시는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전수 조사해 총 25명에게 지방세 1600만 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여수 관광사진 공모전 31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2019 여수 사계절 관광사진 공모전' 출품작을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일몰, 해변, 단풍 등 자연경관과 문화 공연 축제 등이며, 전국 누구나 1인당 작품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시는 주제 적합성, 내용 충실성, 소재 상징성, 작품성 등을 평가해 입상자 40명에게 총 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시상금은 ▲최우수 1명 300만 원 ▲우수 1명 150만 원 ▲장려 7명 60만 원 ▲입선 31명 30만 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이미지 파일과 응모지원서, 출품표를 여수시 관광과로 제출(방문, 우편)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관광문화홈페이지(www.yeosu.go.kr/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테크니션 스쿨 준비 분주

여수시가 제11기 테크니션 스쿨은 2020년 1월과 2월에 교육생 50명을 모집 선발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크니션스쿨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병역(면제 포함)을 마쳐야 하며, 모집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여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영어, 일반상식, 일반화학)과 인.적성검사,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은 청년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 민.산.학.관이 합심해 만든 취업 등용문이다.

지난해까지 수료생 322명 중 305명이 주요 산단기업에 취업해 취업률 94.7%를 기록 중이고, 올해 수료생들도 GS칼텍스와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교육지원과(☎659-4719)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동서양 미인도 한자리에 전시

여수시는 10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자인窈人-동서양의 근현대 미인도 展'이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코리아나 화장품 유상옥 회장이 오랜 세월 모은 회화, 사진, 조각 등 작품 90여 점으로 꾸며진다.

당대 최고 화가들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다룬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당 김은호의 '춘향도'와 운보 김기창의 '미인도' 목불 장운상의 '미인도' 등 20세기 전반을 아우르는 미인도를 만나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여수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돌입

여수시가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8명과 간담회를 열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와 산정 등을 논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다. 시는 10월부터 여수지역 표준지 476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해 내년 2월 13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25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여수시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만흥매립장 주민감시원의 무단 투기쓰레기 반입 저지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유사 봉투 사용 행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행위 ▲이물질이 묻은 일회용품을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시청 담당부서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건당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가두방송,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한해광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건칼럼

김 명 숙
전, 돌산평사보건소장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 사망 33건 발생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 · 외 주요 현황>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발생에 따라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우리나라) 9.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 수입 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기재부, 복지부)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효제도

법률칼럼

한 정 윤
변호사

1.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불현듯 뒤늦게 권리를 행사해 오는 경우에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은 10년, 상법상 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3년, 1년 등의 단기 시효기간을 둔 것도 있다. 3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는 공사에 관한채권, 부양료 채권, 임금채권 등이 있고, 1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는 음식대금채권, 숙박료 채권 등이 있다. 이런 단기시효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권리행사 기간이 짧아 자칫하면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겠다.

2.시효진행을막는 방법은?

채권자는 시효가 진행되는 중간에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여 그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바로 '시효중단'이라는 것이다.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다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아닌 단순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이행청구'만으로는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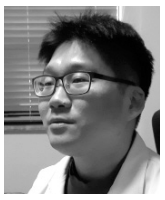
그리고 이행청구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이행청구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 한다.

3. 시효가 지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채무를인정하는경우는?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승인행위'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뒤꿈치 통증 증후군
(Painful Heel Syndrome)

의료칼럼



이준형 원장
허리,무릎,어깨 전문(자연한의원)

뒤꿈치 통증 증후군은 뒤꿈치의 바닥 부분에 통증이 있는 질환이다.

원인은 보통 족저 근막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족저 근막이란 발바닥 근육의 겉에 있는 막으로 족저 근막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염증성 변화가 생기고, 섬유화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족관절의 배굴 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족저 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뒤꿈치 통증의 원인이 되기 쉽다. 뒤꿈치 부분으로 향하는 말초 신경이 눌려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 발의 아치가 낮은 경우 족저 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족저 근막의 염증과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증상은 대부분 급성 외상성(일시적인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세가 심해진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 발을 디딜 때 심하고, 몇 발자국을 떼고 나면 감소한다. 하루 종일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천천히 회복되므로 환자나 의사 모두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증세가 없어진 후에도 서서히 활동을 늘려 재발에 주의해야한다. 증세가 오래될수록 비수술적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대부분은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달리기나 점프를 줄이거나 중지하고,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며, 의사가 추천한 보조기를 사용한다.

예방법은 발바닥에 가해지는 힘이 큰 것도 뒤꿈치의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은 체중을 줄여야 한다.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 발에 가하는 충격을 줄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발바닥이나 뒤꿈치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진다면 의사를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칼럼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김 충 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2019. 10. 1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에서 0.25% 인하한 1.25%로 역대최저 기준금리이다. 2016. 06. 09이후 3년 4개월 만에 다시 역대최저 금리를 찍었다.

현재 상당수 많은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2012년 7월 비유로존 국가인 덴마크가 마이너스 금리를 첫 도입했다. 2016년 상반기엔 유로존 19개국과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일본으로 총 23개국 이었다.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호주 정도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너스 금리란, 금리가 0% 이하인 상태,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간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만약, 시중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고객에게 적용한다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고 이로 인해 은행의 현금 유동성이 급속도로 감소해 금융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거나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부진에 대응한다.

이렇듯 저금리 이면에는 저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또한 지난해 3.6%에서, 올해 3.1%, 내년엔 2.9%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2020년 한국경제는 1.8%로 성장세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만간 가다오는 미래에는 초저금리 시대가 될 것이다. 고금리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특히 노후에는 우량자산을 가져가야 하고 대출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예금은 1금융권 보다는 2금융권의 확정금리인 정기예금 상품을 권유해 본다.

기고문

무장애도시 여수를 꿈꾸다!
우리는 베-프로 통한다~ (Barrier Free)

민 덕 희
여수시의회의원

사회복지 정상화 이념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의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인권헌장〉제정.공포, 〈UN장애인권리협약〉이 공포 되었으며,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이 구체화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장애를 없애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공평하게 이 사회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통합을 넘어 사회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 인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이 세상에 귀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적 제약으로, 장애로 규정되어지고,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며,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한다면, 당신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소박함으로 이해하고, 이해 받으며, '나라면 어떨 것인가'라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코끝을 스치고, 파아란 창공이 눈부신 어느날!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든 시설물이 인간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국제해양관광중심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 성 은

책임시공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가난과 신체적 결함, 숙명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신병은(시인)

손상기의 그림에 보이는 시적 사유…(1편)

여수의 화가 손상기 유고 31주기를 맞아 예술의 섬 장도 전시관에서 10월 8일부터 11월10까지 '지상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대정신' '손상기의 글과 그림전'이 열리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예술가의 영원한 바람이 있다면 삶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삶의 아픔을 감싸주고 껴안아 주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싶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잔잔한 울림이 전해 오는 작품은 예술성을 떠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에 닿게 한다.

괴테도 예술적 내용은 자기 자신의 생활내용이라 했듯이 예술의 소재는 번뜩이는 영감이나 광채에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활 속의 발견이 중요하다. 그 발견이 내 몸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피로 흐를 때에 비로소 예술행위는 가능해진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 고통까지도 어금니로 깨물어 가며 자신보다 남을 위해 울어주는 존재가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내가 손상기의 작품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가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출신이란 점과 요절한 화가라는 점, 무엇보다 그의 작품에서 만난 충격적인 인상 때문이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에 관해 넌지시 물어봐도 시원하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해온 화가들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평은 서로 달랐을 뿐만아니라, 그에 관한 아무런 예술적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평가절하 되어 있었다.

1994년에야 지인을 통해 샘터화랑에서 손상기 화첩을 어렵게 구입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그에 관해 자세한 내력과 많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 자료를 정리하여 여수문학에 지역예술인 조명란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요절한 천재화가 손상기의 삶과 인생" 이란 제하의 특집을 실기도 했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예술인이란 점에서 한번쯤 그를 소개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그를 접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손상기 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 중의 또 하나는 그의 그림도 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그보다 그가 틈틈이 메모해 둔 글귀가 더 인상적이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나는 글을 쓰고 난 후 그림을 그린다
느낀 감수성과 추상을 정직하고 설득력 있게 기록하여 이미지의 집약을 꾀한다
나의 이 집약은 회화와 문학의 접근을 의미한다
- 작업일지 -

그는 분명 화가이기 이전에 시인이었다

그의 문학에 관한 관심과 매력은 많은 독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것이 그의 그림의 밑그림이 되었음을 짐작케 해 줄 뿐만아니라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언어로 이미지화하는 시적 사유과정을 거친다. 화가 스스로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먼저 에스키스 하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에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예술적 교감을 갖게 했다.

개일 줄 모르는 날씨 되어
마음의 비가 있습니다
풀잎에 내릴 수도 없고
물을 동앗치 않는 마른 비가 있습니다
떠나볼 일이옵니다
떠나볼 일이옵니다
지혜의 늪에 지는 석양을 따라
동우리 ??????은 새의 날개짓 속으로
줄여진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가느다랗게 열린 외길 멀리로
지친 눈을 보내옵니다
탈진한 시인의 가슴에
욕망의 불씨를 심으옵니다
그의 마음을 적셔야겠습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가난과 신체적 결함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직면한 삶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상념이 그림으로 귀착된다. 그에게 그림은 아무리 현실을 떠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떠날 수 없어 지친 눈길만 떠나보낸 자리에 탈진한 욕망의 불씨를 심는 작업이자 '지혜의 늪에 지는 석양을 따라 동우리는 찾는 작은 날개짓'이었고, 메마른 가슴을 ?????? 유일한 통로이자 떠날 수 없는 현실을 떠나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남쪽 끝의 항구도시 여수, 쓸어져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는 듯한 모습으로 떠있는 오동도, 녹슨 폐선이 있는 조선소…… 인생은 인내라 했는데 환상을 껴안은 사람들 틈에서 나의 유년은 시작되었다. 종전 후 10년이 채 못 되었기 때문에 그때 모두들 안고 있었던 과제는 꽁보리밥의 가난이었다.

나의 경우는 공통과제에 하나의 짐을 더 얹어 출발하였는데, 그것은 당시의 생각으론 가슴이 떡떡 막히는 신체적 불구라는 과제였다. 대단한 열등감만 내 것이었다.

아이들의 사소한 눈짓이나 별 의미 없는 몸짓하나에도 자주 다짐을 했다.

그리고는 혼자 있게 되었는데, 사물에 대한 관찰과, 잃어버린 말,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것으로 소화해 나갔다. 그러던 중 나에게 야릇한 프로포즈를 해온 것이 그림이었다

손상기는 여수 앞 바다의 작은 섬 연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허리를 다친 후 그는 곱추라는 자신만의 삶의 카테고리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의 삶은 상실 체험의 연속이었으며 친구는 물론 심지어는 말조차도 잃어버린 소외 속에서 사랑할 수도 슬퍼한 집착도 없이 보이지 않는 갈증의 언어 속에 갇혀 보냈다.

그의 삶은 말에 대한 그리움의 연속이었다.

인간에게서 말을 잃어버림은 곧 죽음과 같았으며, 말을 잃은 그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일그러진 운명을 그림으로 표현하므로써 그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었고, 그림은 그가 지닌 숙명적 아픔을 스스로 위안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시적 사유,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억압된 심성에 위안을 주는 반려자였다.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그의『자라지 않는 나무』도 일찍이 그가 만난 자신의 자화상이자 반려자였다. 그 나무에 등을 기댄 독백을 통해 동병상련의 아픔을 위로받곤 한다.

온갖 소외와 절망 속에서 시적사유야말로 그에게는 빛이었고, 구원이었으며 삶의 생채기를 덮고 꿈을 실현시키려는 욕망이었으며, 상실에 대한 극기였다.

사라진 거리에도 그림자로 서 있는
바랜 빛이 있지만
떼품된 이야기를 지우며 산다

어둔 망막이 쫓는
형태도 없는
달아나는 저 수천의 표정들
저 금빛으로 나부끼는 손길을 잊어라

단내음 다시 씹어 넘겨도
꺽꺽 울음으로 나오는
빈 화폭에 떨어져 누운
군청의 고함을 들어야 한다

피가 엉긴 말(言)의 끝
허무의 늪에 꽂힌 뼈
살(肉) 속에 점점이 찍힌 들꽃의 비명이
아직 깨나지 않은 적막을 들고 있다

건널목 사이에서
혈관 끝에 빛나는 신호등
빛 꺼지고 빛 깨어 다스리는 소리
그대는 타오르라 타오르리라
빛나는 별을 보아야 한다
- 1975. <자라지 않는 나무여> 전문-

그의 존재는 그림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늘 빛바랜 그림자였고 그의 삶은 '폐품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 온몸을 태워 현실과 꿈과 부대꼈지만 끝내 피가 엉긴 허무의 늪에서 허우적거렸고 긍정과 부정의 소용돌이 속 오직 들꽃의 비명만 있을 뿐이었다.

'태어났다는 게 억울해서 죽을 수 없다'는 무서울 정도의 집념은 한번 살아볼만한 세상에 대한 오기서린 외침이었다.

그의 육체가 망가져가면 갈수록 그의 예술 정신, 예술을 향한 그의 의지와 촉각은 날이 갈수록 첨예하게 번뜩였다. 숙명적 고독에다 정서적, 설화적인 사유로 억제되고 감추어진 자아를 표출한다.

대학 졸업 후인 1973, 1974년 그는 전라북도 미술전람회 입선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구상전 공모에서 동상, 은상, 입선을 하고 1976년에는 전라북도 미술대전에서 특선, 구상공모로 은상, 한국 창작미술협회 공모전에 출품하면서 주위의 관심을 받는다.

1979년에야 서울 아현동에 있는 골목을 몇 번 돌아 허름한 건물의 지하에 그는 화실을 내고 몇몇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정신적 반려자였던 동거 중이던 연인마저도 떠나고 어린 딸과 함께 음산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는 극한 상황의 연속, 가난과 고독과의 투쟁의 연속이었다

환경이 어려운 만큼 그림에 대한 그의 집념은 강해졌고, 그 결과 1981년 동덕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중앙일보 주최 중앙미술 대상전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1981년 이후 매년 개인전을 열었고 그가 요절할 동안 다섯 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1983년에는 미술평론가들이 뽑은 "83년의 문제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고향 여수의 한길화랑에서 초대전을 가졌으며, 1984년에는 "83. 현대 문제 작가전"에 출품하였으며, 조선화랑에서 열린 "작업실의 작가 16인전" 에 초대되었으며, 국립현대 미술관 개최 해방 40년 민족사전에 출품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L.A현대화랑 초대 구상전, 샘터화랑 초대 개인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으로 한 화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혀간다.

그러던 1985년에 발병하여 폐혈성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의 병은 유년시절부터 누적되어온 고달프고 소외된 삶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끊이질 않았고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그림에 몰두한다. 그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 입원하는 기간도 늘어났고, 결국 그가 예술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한창 때인 1989년 2월 11일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2편에서 계속)

여수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부문 평가 우수상

여수시,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사업 우수기관 선정
지난 1일 서울 콘래드호텔서 보건복지부 주관 시상식 열려

여수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군구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일일자리 사업에 대한 운영과 추진 성과 등을 심사해 표창하고 있다.

여수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해 123억 원을 투입해 75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6600개를 창출했다.

올해는 48억이 늘어난 171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78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인 여수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단 부문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지역의 명예를 빛냈다.

김바다 시민기자

▲여수시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좌)과 여수시니어클럽 김순정 관장(우)이 우수상 수상 후 기념 촬영

이존립 화가 개인전 '정원愛' 갤러리 '청애' 개최

자연에 대한 낭만, 가을정취와 어울리는 감수성 짙은 전시

이존립화가 개인전 '정원愛'가 갤러리 청애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10월 24일(목)부터 11월 23일(토)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 화가가 선보이는 '정원'은 작가가 상상하고 추억하는 것을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진 자연의 모습이다.

박영택 미술평론가는 "이화가의 그림에는 인상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향토주의의 영향이 있다. 아울러 캔버스의 평면성을 강조하고 색채로 환원되는 모더니즘 회화의 원리도 접목되어 있다"고 평론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이 화가가 추구하는 자연과 낭만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동화적인 감성도 이끌어내어 자연에 대한 낭만과 함께 가을정취와 어울리는 감수성 짙은 전시가 될 전망이다.

김영주기자

진달래마을노인요양시설 주민과 함께 가을운동회 개최

마을에서 마을로 이사온 입소 어르신들의 마을 축제의 장

여수진달래마을노인요양시설(이하 진달래마을)이 가을을 맞이하여 입소어르신과 주변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진달래마을이 4년째 주변 풍류, 대곡, 조산 마을의 주민들과 여수지역봉사단체와 함께하는 마을축제의 장이다.

2014년도에 설립된 진달래마을은 사회적 관심과 손길이 절실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다.

진달래마을 관계자는 "도심과 떨어져 이곳 복산리에 시설을 오픈했을 때 요양시설이라는 편견을 지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시설 이름에 '마을'이라는 명칭을 넣은 이유도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살던 마을에서 진달래마을로 이사 온다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이라서 젊은 사람이 부족하고 가을운동회를 할 아이들도 없다. 마을어르신들과 진달래 입소어르신들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하는 동네잔치 축제다."라고 가을운동회의 취지를 밝혔다.

매년 매회 다르게 추진되는 진달래마을노인요양시설 가을운동회는 어르신들의 농산품을 서로 교류하는 장소의 장을 열어 수익품은 어르신들이 다른 물건을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호박, 곡식 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어르신들은 직접 담근 고들빼기 김치를 가지고 오시기도 했다. 노래자랑, 따뜻한 붕어빵 나눠먹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최향란기자 . 사진 김영주기자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정화활동

10월 연안정화의 날 맞이 광양항 해양쓰레기 수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인근 수로와 태인2교~동호안 사이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5톤을 수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회원 LG화학, GS칼텍스, POSCO,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협의회, 광양만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간조시에만 들어나는 해저의 폐그물 등 어구를 주로 수거하였으며 쓰레기가 오랜 시간 갯벌에 묻혀 있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람들이 버린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물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메랑 효과로 우리 인간에게도 역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여수 밤바다와 더불어 깨끗한 바다, 다시 찾고 싶은 바다 이미지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실천과 합심하여 수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해광기자

그 집 가봤어? / 여수 해리슨가든

잘 차려진 한상차림… '산채정식게장 백반' 점심특선메뉴

관광객들에게 '여수'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가 뭘까? 아마도 간장게장과 갓김치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간장게장집 중에서 독특하게 산채정식게장 백반을 점심특선메뉴로 내놓은 해리스가든을 소개한다.

해리스가든 산채게장백반은 건강식을 좋아하는 주인장이 자신이 좋아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관광객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산채나물로만 구성을 했다가 간장게장이 더해지고 뭔가 부족하다 싶어 제육볶음에 생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금의 산채게장백반을 탄생했다고 하는데 정말 푸짐하고 깔끔한 한 상이다.

속을 편하게 해주는 산채나물과 군침도는 붉은 제육볶음, 밀가루옷을 입혀 튀겨져나온 생선. 흔히 보기힘든 강된장까지 총 16개의 음식으로 푸짐하게 나오는데 맛있고 깔끔하다.

과연 수익이 날까 싶은 걱정이 들정도 너무 잘 차려진 한상차림. 더욱 놀라운건 제육볶음에 나물들이 계속 리필이 된다는것!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족하지 않게 맘껏 먹을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격.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비싸면 가기가 꺼려지기 마련. 점심특선으로 나온 산채게장백반의 가격은 8,500원!!!

요즘엔 죽 한그릇도 8,000~9,000원하고 일반 간장게장집들도 10,000~ · 12,000원정도 하는데 그에 비해 이곳 가격이 너무 저렴해 놀랐고 저렴한 가격에 대접을 잘 받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

청량고추가 게장 위에 송송 썰어 올라가 게장을 먹을때 조금씩 올라오는 매콤함이 전체적인 맛을 깔금하게 잘 잡아준다. 조기구이도 밀가루를 묻혀 튀긴 느낌이여서 더 고소하고 맛있다.

보리밥과 쌀밥중 선택이 가능했고 비벼먹고 싶다고 하면 김가루와 참기름이 담긴 큰 볼을 주어 비벼먹을 수 있다.

천나현기자

초, 중등 영어과 하반기 권역별 찾아가는 연수 시작

전라남도국제교육원(원장 고미영)은 목포교육지원청과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전남 서부권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초, 중등영어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초, 중등 영어과 권역별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영어과 권역별 찾아가는 연수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외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이 동부권인 여수에 위치해 있어 서부권과 중부권 등 타 지역 영어교사들의 연수 참여가 저조하였다.

2019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연수의 강사들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초등교사 1명과 중등영어교사 2명을 강사로 초청해 초등은"음악을 활용한 파닉스 지도 방안"을 그리고 중등은"저성취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백워드 수업설계" 및 "질문이 있는 영어교실"의 3가지 주제로 10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서부권(목포교육지원청), 중부권(화순교육지원청), 동부권(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3개 권역에서 9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총 200여명의 전남 초, 중등영어교사가 참석을 희망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연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특히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연수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에 연수 운영을 바라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이번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는 권역별 찾아가는 연수를 비롯한 모든 연수 과정에 청강형태로 참여하는 교사들이 15시간을 이수할 경우, 이를 누적하여 "연수마일리지제"운영을 통해 1학점을 2019학년도 말에 부여할 계획이다.

최향란기자

여수일보사 호루라기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제보자는 신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제보방법
전 화 061-654-8885, 061-810-0011
메 일 ysibtv@hanmail.net

자연을 지키는 마음은 하나, 바다를 사랑하는 '바다속 환경 지킴이'

초대석

장 동 연
(정기화물 대표)

"바다가 살아야 여수가 산다!"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통해 여수바다 해양쓰레기 정화봉사와 바다사랑 캠페인에 앞장서온 장동연 정기화물대표를 만났다.
이하 내용은 장동연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스킨스쿠버를 배울 때 바다정화 봉사를 생각했었는가?

-나는 도구없이는 물에 뜨지 못하는 사람이다.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8년 전 전남대 평생학습교육을 통해 스킨스쿠버를 배웠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에서 뜰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 때는 바다환경 봉사를 생각하지 못했다.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바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아름다운 바다를 오염 시키는 건 한 순간이지만 다시 되돌리기엔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

푸른 바다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와 해초들이 있는 바다를 체험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로 어떤 바다환경 봉사를 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바다의 날, 바다사랑 같은 행사를 하는 측에서 불가사리 퇴치 정화운동에 협조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여수는 근교 앞바다가 온통 불가사리 천국이다. 바다 속에 들어가 한 사람이 불가사리 50kg씩 5명이 250kg 잡아와도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예전엔 불가사리로 비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요즘엔 수매를 하지 않아서 불가사리 퇴치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불가사리는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해적생물이다. 강한 포식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한 천적도 없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에겐 그나마 우리 스킨스쿠버 회원들이 천적인 것 같다.

▶여수 인근 바다쓰레기의 심각성은 어떤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은 여수바다도 마찬가지다.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 중 폐어구와 폐부표가 50% 이상이다. 특히 여수는 양식을 하기 때문에 스티로폼 부표가 많다. 이 폐부표는 쉽게 쪼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생물에 흡수되고 결국 우리 인간들이 먹게 된다.

바다쓰레기 감소를 위해서는 어업계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어구와 폐부표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어민들의 교육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

폐어구와 폐부표 등을 수거하는 집하장이 섬마을 선착장에 있지만 수거율이 높지는 않다.

여수는 양식장도 많고 섬도 많은 지역이라서 쓰레기가 많은데 인근이 뻘이라서 수거하기가 만만찮다. 쓰레기를 건들면 뻘이 일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매우 위험할 때가 많다.

우리의 바다를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

-20년 쯤 전에 아내와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원의 한 아이를 후원하는 것이 최초였다. 그때는 봉사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체계적이거나 뚜렷한 목적이 없이 가족과 함께 보육원 아동돕기를 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와이즈맨이라는 봉사단체를 알게 되어 활동하다가 10년 전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나눔 활동이 계속 이어져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니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봉사단체는 좀더 체계적이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 많은 봉사자들이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고 그 정신을 본받고 싶다.

그 사람들과 함께 모두모아봉사대에서 섬마을 청소봉사를 가고, 소외된 가정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밥차봉사도 했고, 사단법인 ECO-PLUS21 환경단체에 들어가 바다살리기 캠페인도 했다.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가서 물 한 방울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두 함께 하는 봉사를 하다가 지금은 스킨스쿠버를 통해 바다속 정화 활동을 한다. 미용사가 이미용 봉사를 하고 의사가 의료봉사를 하는 것 처럼 전문적인 분야의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봉사도 전문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어촌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직접 보낼 때가 많다. 단체에서든 섬마을 어촌계에서든 언제나 지역사회 부름에 응답하려고 노력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어야할까

-바다가 살아야 여수가 산다. 이제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 스스로 충격을 받고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다.

최근 정부에서는 바다양식장에서 쓰는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사용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격면에서 맞지가 않고 부력이나 바람의 영향에서 친환경부표가 외면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큰파도나 태풍이 오면 스티로폼부표는 부식이 많고 해양을 심각하게 회손시킨다. 지금은 친환경부표가 부력, 크기, 성능 등이 많이 좋아졌고 정부지원도 있으니 우리 어민들에게 널리 보급되길 바란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공동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자연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는 자연에 의존하고 그 지역의 자연에 적응하여 살아간다.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자연을 지키는 마음은 하나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대표 문 경 일
010-9450-7529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Ltd. 보성테크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Bosung Tech 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본 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인터넷 www.bs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

우동식의 <詩 읽어 주는 남자>

미워 할 수도 없는 이 웬수, 어쩌면 좋아

징함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녀석 말을 배워
가끔씩 내 뱉는다
'징함네~ '

약속시간 늦어도
취해서 들어올 때 도 '징함네~ '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것 같아도
적절하게 쓰는걸 보니
허허, 웃음이 난다

알고나 하는 말일까?
아들 눈에 무에 그리 징할까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임호상

그 녀석 참 '징함네~ ' 하는데
뉴스를 보며 어머님도 한마디 하신다
'징함네~ '

세상 참, 징함네 ~

/ 詩詩한 이야기 /

우동식

징함네는 징하다는 뜻이다.

'징하다'는 '징그럽다'의 전라도 방언이다.

징그럽다는 만지거나 보기에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하게 흉하다는 뜻이다

동의어로 '징글징글하다'는 것이다.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도 하는 말 '징함네'

여기서는 그 시어가 정겹게 들린다. 끈질기네, 정말 대단하네, 미워 할 수도 없는 이 웬수, 어쩌면 좋아, 걱정과 근심 안에는 미움과 원망보다도 사랑이 짭쪼럽하게 배여 있다.

'세상 참, 징함네 ~'

그러나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자꾸만 이 구절이 촌철살인으로 다가온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고 넋두리 인양 하소연 인 듯 욕인 듯 중얼거리게 된다.

일반 상식과 보편적 시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곧 잘 징함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음을 보고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데 그때 이미 책임을 지고 우리 눈에 사라져야 할 지도자가 정당이 버젓이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징글징글하다.

10월19일이 여순 항쟁 71주년이었는데 근 현대사만 보더라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 그렇게 많았고 반복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단어가 생각난다.

제주4.3항쟁, 여순 항쟁, 함양. 산청.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대전 골령골 민간인학살사건, 대구 10월 항쟁, 부마 항쟁, 광주5.18민주화 항쟁 등 반복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참, 징하다.

일제 감점기 일본 앞잡이 노릇 하던 친일 정치지도자, 경찰, 공무원, 언론인, 문학인, 경제인 등 해방 후에도 청산 하지 못한 그들과 그 후손들의 잔재가, 토착 왜구가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설치는 것을 보면 또 이 시어가 생각난다.

개검(狗劍), 떡검, 견찰(犬察), 기레기, 쓰레기 같은 신조어가 난무하는 것도 자기 밥 그릇 지키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한 자 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 에게는 한 없이 강한 모습으로 비친 그들의 모습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처절하게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징함네가 절로 나온다.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것 같아도 적절하게 쓰는 걸 보니 허허, 웃음이 난다 '는 시인의 말에는 어머니의 언어가 아내의 언어로 아들의 언어로 유전됨을 예리하게 통찰 하고 있다.

마치 역사의 유전자가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듯이

언어의 온도와 언어 속에 들어있는 뼈는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징글징글한 어떤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도려내야 함을 넌지시 건네고 있다.

세상, 참, 징함네 ~

우리지역 예술인- 이중현 성악가

여수 출신 촉망받는 젊은 성악가 바리톤 이중현

2016년 여수로 귀향해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젊은 성악가 바리톤 이중현의 재능나눔 봉사활동과 그의 인생철학을 들어본다.

"음악과 성악 활동에 있어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불러줄 정도로 실력을 갖춰놓지 않으면 바로 표시가 나죠"

순수 국내파 성악가이기에 해외파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한 다고 말하는 이중현씨는 자신의 음악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농어촌, 다문화가정, 교도소 등 '찾아가는 음악회' 250회 이상, 일반 기념행사 축하연주 100회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그는 성악가이자 공연기획의 행정능력을 겸비했다. 공연기획 연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이다.

"서울에서 거주 할 당시 은사님의 회사에서 예술계에 만연했던 소위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일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주 3회 출근에 월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축가나 간간히 들어오는 행사 출연으로 조금씩 살림에 보탬을 했죠. 그러다 회사를 나와 1인기획사를 운영했습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를 알리자는 마음이었죠. 2012여수엑스포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박람회 당시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센터 운영부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다. 지금의 공연예술 기획의 밑바탕이 된 행정과 기획능력을 배웠다. 2018년에는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3인3색 음악회를 2019년에는 이중현 자신의 3번째 개인 독창를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모두 성공리에 개최했다.

그는 현재 서울 노숙인, 독거노인들로 이뤄진 '채움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다. 채움합창단은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독거노인, 쪽방 촌 거주자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활동을 통해 자활의지를 불어 넣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사회적응과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해 창립된 합창단이다.

2017년 3월에는 여수를 찾아 '꿈꾸는 세상'이란 주제로 멋진 하모니를 뽐내고 2018년 11월에는 여수장애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능기부 선순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중현씨는 "세상과는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들에게 음악이 주는 무궁무진한 힘을 통해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렵니다. 모든 사람이 한사람도 버려지는 사람 없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로막힌 벽을 향해 소리쳐 노래 불러 그 벽을 무너뜨릴 겁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여수지역 청소년 예술문화과 청년 예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박은경 시집, '길을 가다보면'

박은경 시인의 '길을 가다보면' 시집이 출판되었다.

시인은 각별한 마음 외 110여 편의 시를 담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박시인은 여수출생으로 전남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인의 말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으며 발가벗겨진 내면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십대와 오십대를 거쳐 인생을 노래하는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병환을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지켜보며 고뇌했던 마음들과 그리움. 그래도 또 다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며 엮어간 하늘, 땅과 사람들 사이의 사연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내 운명 나의 사랑 그분께 이글을 드립니다.

최향란기자

내 영혼을 꽃피우는 시 여수사랑 행복시낭송 콘서트

제9회 '내 영혼을 꽃피우는 시' 여수사랑 행복시낭송 콘서트가 11월8일(금) GS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시낭송과 함께 여수시와 여수물꽃시낭송회가 주최한다. 시낭송과 함께 성악,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룻 연주가 함께하고 여수정보과학고의 댄스와 남성중창단과 서혁신의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있을 예정이다.

여수물꽃 시낭송회는 2011년에 창립되어 매년 1회 정기 시낭송콘서트를 예울마루에서 펼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시낭송콘서트와 시낭송세미나, 각종 행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장 우동식시인은 "11월 아름다운 가을, 사랑하기 좋은 계절에 모두 사랑으로 엮어지길 바란다. 우리의 영혼이 시로 인하여 더욱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게 꽃피워지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주영 기자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10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사람은 다르다

헤어 관리(증모편)

20대 중반의 고객님은 어린 분인데 앞머리 M자 탈모 고민으로 찾아오셔서 헤어 증모술을 해드렸다. 증모술이란 한 가닥 머리카락에 네 가닥의 머리카락을 더 하는 작업인데 비었던 부분이 풍성해진다. 병원에서 모발이식을 한다면 미용실에서는 머리카락을 더하는 것이다. 시간이나 비용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있는 장점이 있다. 격식을 차릴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한 번쯤 해 보시라고 추천한다.

"관리"의 사전적 의미에 "사람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한다." "시설이나 물건 또는 심신의 유지와 개량을 꾀함" 이란 뜻이 있다.

농사를 지었던 부모님은 밭에 풀이 많이 자라 있으면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새벽마다 "지심 메러 간다" 고 하시며 몸살기가 있으셔도 매일 밭에 나가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정갈하게 정돈된 밭은 당신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다.

담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밭을 보고 부지런한 주인 닮아서 깨끗하다는 오고 가는 이웃들의 덕담이 좋았던 건 아닐까?

피부숍에 방문하면 등 관리, 복부 관리, 림프관리 등 세분화 되어있듯 미용실에서도 헤어 관리란 말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멋을 위해 미용실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부쩍 탈모 인구가 많아져 두피 관리부터 탈모 관리, 손상모 관리까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위의 사전적 의미처럼 나 자신을 통솔하고 감독하는 한 부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물론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부분에만 취중 한다면 그건 사치나 허영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부지런한 농부와 같이 칭찬받을 만하다.

인생을 나만의 회사라고 가장하고 파산 나지 않는 회사를 유지하지 위한 CEO가 되어 자신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고 관리 한다면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에 거대한 태풍이 불어 닥쳐도 끄덕없을 것이다.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기획 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협력업체 포함)은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을, 국회의원)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과, 산단 조성과 조업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환경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유해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역청년 우선고용, 지역협력업체에 일감을 우선 배정,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청년 우선고용에서는 지역고교 출신 우대정책(가산점부여), 지역대학 출신 일정비율 배정 (여수시와 협약서 체결)등의 방법으로 지역 출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여수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산단 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남해화학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보장과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행정관 (전,청와대국가안보실 평화기획) 답변서 도착 10월18일

지역인재 우대는 경영진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 양질의 여수산단 내 기업에 지역인재들의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수년전부터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발전 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공채 시 여수시민 채용 가점을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으나, 그동안 여수시민이 받은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집단이주 등의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함

이제는 지역인재 가점제를 넘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이미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할당제를 지시한 바 있음.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인재들의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함. 여수산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수테크니션 스쿨이 아주 좋은 사례임.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94.7%에 달하며 10기 수료생 49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32명이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 제2, 제3의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고급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현재 둔덕소재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해야 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취업아카데미도 참고할 만 함

최근 남해화학 실직사태와 같이 여수산단의 사내하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수수료 명목의 중간 착취현상이 심각하고, 남해화학의 예처럼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상 사용자가 달라,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되고,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 파견허용 규정도 삭제해 직접고용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는 개혁안이 필요함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답변서 10월 19일

여수시가 대표적인 기업 GS칼텍스 등을 필두로 300여개의 기업들과 함께 한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기대와 달리 지난 50년의 시간동안 속아서 살았다. 대기오염 속에서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며 그로 인한 인구유출은 전남 제1의 도시 아성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민 근로자에 대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 중고교출신과 대졸자 취업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에도 총장추천 방식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단기업에 필요한 화학공학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남대 의무할당제는 여수캠퍼스에 화학공학과 등 관련 공대학과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산단기업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여수 관내에서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는 산단내 기업 취업시 가산점+를 적용시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은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정규직들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 아니겠는가?

최도자 의원 (국회의원)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지자체가 인센티브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하는 방식 고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서 민간 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이용주 의원 (여수갑, 국회의원) 답변서도착 10월 19일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년대에 세워진 이후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대기업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2만 3천명이 넘어 서고, 가동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한화케미탈 등 대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35만평의 공장부지가 없어, 더 이상의 투자는 멈췄고, 이로 인한 인력채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공장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도 확대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적극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가산점을 적용하여, 세금감면 및 기업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수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주철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답변서 도착 10월17일

"다원화된 기억-지역 소통채널 일원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산단이 지역사회와 만든 다원화된 소통채널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산단 기업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와 소통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가칭 산단 상생위원회, 여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제 중 하나는 꼭 지역민 우선 채용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 재직시 시민 우선채용을 위해 '시민 가점제'를 몇몇 기업으로 부터 이끌어 냈고,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과도 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기업들이 지역을 더 생각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로 나눠진다.

요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불안정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의 문화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상생위원회에서 협의해 여수만의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만의 공식 상생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정기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역) 답변서 도착 10월 18일

현재는 산단 내 몇 개의 공장들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산단 공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전 기업들이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과 환경화학공학과 등의 졸업생과 지역내 고졸 출신 학생들을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정년보장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